

■ 교회소식 ■

1. **선교회 총회** : 오늘 선교회는 총회로 진행됩니다. 각 선교회는 한 해 살림을 정리하고 신년도 임원을 선출해 사무실에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활동보고** : 각 부서와 기관은 2017년 한 해 살림을 정리해서 사무실에 오늘 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속장인도자 모임** : 오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청파속회 속장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4. **속회 참여 신청** : 연령별 및 지역별 모임인 속회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실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김장** : 22일(수) 12시, 23일(목) 10시에 교회 김장을 합니다.
6. **기획위원회** : 당회 준비를 위해 기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기획위원들은 25일 (토) 오전 10시 30분 교회 세미나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7. **별세** : 지난 15일 김용해 집사님이 별세하여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8. **신앙실천** :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계 11:15-19
------------	------------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예배위원 2부	김기석	박범희	이재삼

	1부 영접위원	최재욱	헌금위원	이수정
11월 2부 영접위원	하현철 권혁순	허신열 유경순	이은주 김경혜	
2부 헌금위원		김정민 진정숙		

오늘 식당 봉사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김현주 김문주 조우석 이민범 한성건
다음주식당봉사	이순정 오복순 정연경 정현주 임광호 김혜라 안종일 홍윤선
오늘설거지봉사	3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4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5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임주빈

109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12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X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 ▲ 경배의 찬송 31.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해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겨울, 우리가 하나의 불꽃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추위에 떠는 이들에게 온기를 전하게 하시고, 어둠에 갇힌 자에게 빛을 전하는 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삶을 튼튼하게 지켜주었던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흔들림 없는 터전이 되어 주시고 안식처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계21:3b,4 인도자
 - ▲ 교 독 문 82. 빌립보서 2장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윤성종 권사
 - 2부응답송 찬양대
 - 2부찬양 393. 오 신실하신 주 다 함께
 - ▲ 성경봉독 요나 1:4-10 I. 인도자 II. 김명하 집사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I.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마중물찬양대
II.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구재원	권혁순	박혜경	김근종	정옥영	김명희	김문주	김미숙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상호	김종문	지명주	김지현	김태정	김필순	김해선	김혜라
김훈동	유경순	문금석	박기원	이미영	박민아	박시내	박옥순	박재영	이현정
박준민	최광희	박준희	이기분	변재민	이소혜	성지현	신현일	은종인	이경남
이근식	신영신	이수자	이순용	김신실	이순이	이주영	오재영	이치림	강상연
이한림	김명희	임명희	장기환	정두리	정원석	김현영	정종삼	조병무	송양진
조순덕	조호진	최승주	최소라	고인성	최 숙	최은미	최재욱	이수정	한상익
정영선	허호범	박성실	현 진						

감사헌금

김나름	김영란	김인석	이선화	김향자	민지희	박진주	박창순	방경선	오민용
유금주	유수진	이상도	임선양	신현숙	임은영	임종수	장동열	최윤주	장하진
정영례	정학성	김현숙	한상수	남해린	무명1				

생일감사헌금

박재영 이현정


녹색꿈헌금

김반야 김영호 박영림 장현희 최다운 무명5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총회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김재흥 목사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꽃의 기억

- 복효근

어시장 꽃게들이 트럭에 실려 떠난 자리
 꽃게들의 다리가 널려있다/
 몸통은 어디론가 다 떠났는데
 남은 집게다리는 아직도
 지켜야 할 그 무엇이라도 있다는 듯 꼭 아물려 있다 더러는
 이쯤이면 됐다는 듯
 무엇을 기꺼이 놓아준 표정이다/
 제 몸을 먹여 살렸던 연장이며
 제 몸을 지키던 무기였던 것
 종내는 제 몸을 살리기 위해
 제 몸으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내었을 터/
 몸통이 두고 갔거나
 다리가 몸통을 떠나보냈거나
 한 쪽 손을 두고 떠난 이주 노동자처럼
 꽃게에게 마음이 있다면
 집게발에 들어있을 것이다/
 끝까지 버틴 흔적,
 그래서 남겨진 꽃게의 집게다리엔
 슬픈 꽃무늬가 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석
 전도사 : 장영숙 소속 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광권희 장원호
 지휘 : 강석남 안홍숙 한선희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진선 김 린 이상미 김가현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거룩하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네

말씀	주님의 낮을 피하여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안수지 교우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며 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다함께:	아멘. 주님의 낮을 피하여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아픈 마음으로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당신의 공동체는 안녕하십니까

때는 1960년대,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로세토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미국에 온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진료하던 의사들은 신기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로세토에서는 유달리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세토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즐겼고, 비만인 사람도 많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병 위험인자가 많은 지역에서, 실제 심장병 사망은 오히려 적게 발생한 것입니다.

... 같은 이탈리아 이민자 마을인 방고는 로세토에서 1.6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같은 식수원에서 물을 공급받고, 같은 병원을 이용합니다. 조건이 유사한 방고와 비교할 때도 로세토 주민들의 심장병 사망률은 방고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

이 마을의 특별한 점 하나는 니스코 신부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니스코 신부는 마을이 성장하기 위해 정치적인 참여와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세토 주민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어 투표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라고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마을을 단장하기 위해, 씨앗을 나누어주며 꽃을 가장 예쁘게 키운 사람에게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니스코 신부의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역 채석장의 근로자들이 1시간당 8센트라는 극단적인 저임금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채석장 사장을 만나 임금인상을 위한 협상을 시도합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니스코 신부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스스로 노조 위원장이 되어 파업을 주도하지요. 그 결과 로세토 채석장 근로자들은 1시간당 16센트씩 받으며 일하게 됩니다.

니스코 신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로세토 주민들은 마을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죽으면, 이전에 있었던 갈등을 뒤로하고 죽음을 함께 애도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그 집의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는 무언의 약속도 있었고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식량과 돈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이 경제적으로 파산했을 때 그 가족을 돕는 것은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동체와 깊숙이 결합된 개인들이 꾸려가는 상호부조의 문화는 실제로 힘이 되었지요. 로세토에 사는 한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당신도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해줄 것이라는 확신은 기꺼이 힘겨운 삶을 꾸려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

1990년대에 출판된 논문과 책은 로세토 사람들의 심장병 사망률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로세토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했거든요. 공동체의 붕괴와 함께 로세토의 심장병 사망률은 점점 올라가고, 마침내 로세토 마을의 비교대상이었던 방고와 비슷해집니다. ... 점차 자본주의적 이념이 마을에 깊게 침투하고, 공동체에 대한 기여보다는 개인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고요. 젊은이들은 로세토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답답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대학 졸업 후 전문직을 얻은 이들은 로세토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

로세토 이야기는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이 맞닥뜨린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공동체, 타인의 슬픔에 깊게 공감하고 행동하는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고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요.

당신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의 공동체는 안녕하십니까?

-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 중에서